



초대의 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아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韓國男聲合唱團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합창단이 노래를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일 뿐만 아니라, 지난 1985년에 교류를 시작하여 2~3년마다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같이 노래하고 돈독한 우애를 나누는 합동연주회도 10회째를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 5월에 개최되는「제10회 한·일남성합창연주회」는, 한국남성합창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최고의 남성합창단인「도쿄 리더타펠 1925」(M.G.V. Tokyo Liedertafel)과「오사카남성합창단」(OSAKA MEN'S CHORUS)의 단원 100여명이 내한하여, 좀처럼 만나기 힘든 총 180여명의 매머드(Mammoth)급 남성합창연주가 될 것입니다. 한일 3개 합창단의 모든 단원들은 그날의 감동을 위해, 도합 176년이라는 연륜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뜻 깊은 이번「第10回 韓日男聲合唱演奏會」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남성합창단 단장 안재석



한국남성합창단 지휘 김홍식

- 서울대 음대, 밀라노 시립음악원 합창지휘과, 오케스트라 지휘과 졸업
- 코리안 심포니, 부천 필, 국립합창단, 부천, 안산 시립합창단 등 200 여회 콘서트 지휘
- 라보엠, 마술피리 등 20 여편의 오페라 지휘
- 미국, 독일, 호주,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주 지휘
- 예술의 전당 음악예술감독, 서울 국제 음악제 집행위원 등 역임

- 현재 한국남성합창단, 포스메가 남성합창단 상임 지휘자, 사랑의 교회 지휘자, 한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韓國男聲合唱團

韓國男聲合唱團은 고등학교 시절 합창반에서 남성합창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대학생들의 주도로 창단되었다. 남성합창의 맛과 멋을 잊지 못하던 뜻내기 대학생들이 1958년 6월 11일, 대학교의 한 강의실 구석에서 합창을 시작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명물로 성장한 韓國男聲合唱團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창단 초기의 연습은 반주악기도 없는 강의실에서 단원 중 한 사람의 지도로 이루어졌다.

발족 1년 만인 1959년 5월 6일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던 시공관(국립극장의 前身)에서 초대 지휘자인 미국인 Hugo George Goetz(당시, 주한 미군 중령)의 지휘로 그 막을 올린 것이다. 연습장소는 물론 지휘자도 없었던 합창단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지휘를 자청하고 나선 Goetz는 용산의 미8군 영내교회를 연습장으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악보와 단원들의 출석 및 귀가 편의를 위한 군용버스까지 동원해주었다. 이는 곧 韓國男聲合唱團이 초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창단공연 직후 Goetz가 본국으로 전근하게 되어 서수준 교수(당시, 경희대 음대 교수)를 두 번째 지휘자로 맞이한 韓國男聲合唱團은, 같은 해인 1959년 12월 19일,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서수준 교수는 이후 10년 간의 지도로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데 공헌하였으며, 韓國男聲合唱團은 그가 지휘하던 기간 동안 국내 굴지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서수준 교수에 이어, 유병무 선생(前, 선화예술고등학교 음악부장, 음악감독)이 이후 30년 간 지휘자로 봉사했으며, 1999년부터 6년 간 김홍식 교수(現, 한서대 예술학부 교수), 그 후 2년 간 최영주 선생(現, 고양예고 음악부장)과 박신화 교수(現, 이화여대 음대 교수, 객원지휘)가 수고해 주셨으며, 앞서 지휘자를 역임했던 김홍식 교수가 2007년 초 다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른다.

韓國男聲合唱團은 국내에서의 활발한 공연활동은 물론, 외국 남성합창단의 내한 공연 시 파트너로 함께 공연함으로써 민간외교사절의 뒤편 충실히 해 왔으며, 또한 국가적인 각종 행사와 자선 무대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건실한 합창단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나아가 그 활동영역을 해외로까지 넓혀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도 연주회를 가졌다. 특히 일본의 전통 깊은 남성합창단인「도쿄리더타펠 1925」과는 1985년 이래 2~3년마다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합동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오사카남성합창단」, 2005년 일본 공연 시에는「카나자와 남성합창단」이 협연한 바 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연주회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100여명의 단원이 내한하여 총 180여명의 웅장한 남성합창연주가 될 전망이다.



Tokyo Liedertafel 1925 지휘 이와사키요시히코(岩佐義彦)

나가노켄 출신. 메이지대학 졸업.故 아라카히로아끼 선생에게 성악·합창지도법을, 아라타니순지 선생에게 지휘를 사. 메이지대학의 남성합창단「アウレアヴォークス」상임지휘자를 다년간 역임했으며, 다수 합창단의 객원지휘자 활동. 1996년 남성합창조 곡인「壁きえた」,「沙羅」를 CD로 출판, 그 외「와라베우타」,「藤堂輝明의 세계」등이 있으며, 연주회에서 종교곡, 고전, 낭만파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어의표현을 중요시하는 邦人(일본인) 합창작품의 연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Tokyo Liedertafel 1925

독일남성합창단을 매우 동경해 왔던 도모시사대학(同志社大學) 글리클럽 출신의故 야마구치다카히코(山口隆彦) 씨, 후일 일본합창연맹이사장을 지낸故 아키야마 히데오(秋山日出夫) 씨 등에 의해 1925년(大正14年) 창단, 올해 벌써 83주년을 맞는다. 창립이래 독일합창계와 교류가 많았으며,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유일의 독일합창연맹해외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5회에 걸쳐 독일합창연맹주최 합창제에 초청되어, 독일연주여행을 하였고, 지금까지 방문한 도시만해도 20곳이 넘는다. 한국남성합창단과의 교류는, 1984년부터 시작되어 도쿄와 서울에서 오가며 합동연주회를 개최해 왔으며, 최근 2002년 4월에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한일월드컵을 기념하는 제8회 연주회가, 바로 전회인 제9회는 2005년 7월에, 카나자와와 도쿄에서 합동연주회를 개최했는데, 카나자와에서는「남성합창단 카나자와 메너 코르」(Kanazawa Manner Chor)가, 도쿄에서는「오사카남성합창단」(OSAKA MEN'S CHORUS)이 한국남성합창단과 더불어 각각 3개 합창단이 힘있는 합창으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한국남성합창단과의 교류하면서 많은 한국가곡이 도쿄리더타펠의 레퍼토리가 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1971년, 일본남성합창협회(Japan Male Chorus Association: JAMCA)를 발족시켜 남성합창의 진흥과 상호교류를 도모해 왔으며, 작년 7월 히라사키(弘前) 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의 남성합창단이 모여 제18회 합동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단원은 80명이지만 단원 모두가 항상「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언제나 젊은이들」이며, 항상 도전정신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연주를 목표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

OSAKA MEN'S CHORUS (지휘: 安井直人, 石津佳彰)

1965년 OB모임이 아닌 남성합창을 열망하여 27명이 모인 것이「OSAKA MEN'S CHORUS」의 시작이다. 바다의 사나이들의 노래인 Sea Chanty에 낭만을 추구하여 그것을 주된 레퍼토리로 하고 있다. 합창뿐만 아니라 다목적 사교집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름에 떠나는 바캉스여행은 창단이래 계속하고 있다.

창립 10주년에는 페스티벌홀, 20주년에는 심포니홀에서 리사이틀을 개최했으며, 그 이후에는 독자적인 오페레타 공연에 도전하여,「분 대장」과 30주년에는「전함 피나휘아」를 무대에 올렸으며, 35주년에는 창작 오페레타「돌고래 나라이야기」를 공연한 바 있다.

2000년에는 칸사이에서, 2005년에는 도쿄에서 한국남성합창단과 합동연주회를 하였으며, 2003년 일본남성합창협회(JAMCA)에 가입한 후 2004년 도쿄연주회에 참가했다. 2005년 이즈미홀에서 개최된 창단 40주년 기념 제32회 연주회에서는, 일본합창계의 명곡 시마요(島よ)의 작곡자 大中恩 선생의 편곡과 지휘로 초연하였고, 2006년 제33회 연주회(주제: American Music)에서는 4개의 스테이지를 모두 영어로 연주했으며, 2007년 제34회 연주회는 남성합창조곡 등 다양한 스테이지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다.